

천·박·정 호남 4자연대 총선 새변수

〈천정배·박주선, 박준영·정동영〉

31일 공동 신당 창당 추진...박지원에도 합류 요청

다음 통합정보 관심 집중...국민의당, 접촉폭 넓혀

천정배·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정동영 전 의원 등 호남의 신당 세력들이 연대 및 통합에 합의하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통합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과 어깨를 겨룰 신당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호남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호남 신당의 출범과 선택은 총선 구도 및 야권 재편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천정배, 박주선 의원은 광주 신영파크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전북의 정동영 전 의원과 함께 '3자 연대'에 나서기로 했다. 천 의원은 박 의원은 3자 연대와 함께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김민석 전 의원 등 다른 야권 신당 추진 세력까지 아우르는 '통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합류 등도 요청하기로 했다.

박주선 의원은 24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주부터 저를 비롯해,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 측 실무진들이 만나

통합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국민회의나 통합신당 측이 아직 창조위 단계이므로 통합 합의가 이뤄진다면 31일 공동 신당 창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준영 전 지사의 신민당과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도 통합 논의에 함께할 것"이라며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통합의 대열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과 만나 호남 신당 세력과의 통합에 동참할 것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작년 4월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고향인 전북 순창으로 내려가 정치와 거리를 뒀으나 4·13 총선 출마설이 거론돼 왔으며 오는 25일 전북에서 열리는 강연에서 정치 재계 선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호남의 통합 신당 세력이 더민주와 국민의당 가운데 어느 진영과 연대 및 통합을 모색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호남의 신당 세력 통합이 현실화된다면 더민주보다는 국민의당과 함께 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상

황이다. 신당 창당 자체가 '더민주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데다, 구성원들도 더민주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당은 김한길 의원과 주승용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호남 신당 세력과의 접촉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내부에서는 '선 독자 세력화, 후 신당 세력 통합'이라는 방침 수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에서는 그동안 천정배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으나 천 의원이 호남 신당 세력과의 통합에 나서면서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을 제외한 야권 신당 세력 간의 통합 타이밍은 이달 말에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다면 호남 신당 세력은 총선 국면에서 존재감을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박준영·김민석 신당 통합 합의

〈신민당〉 〈민주당〉

공동 지도체제 당명은 '민주당'...30일 통합대회

호남권 신당파의 통합·연대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박준영 전 전남지사 측 신민당(창당준비위원회)과 김민석 전 의원 측 민주당이 통합을 결정했다.

이번 합당 결정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야권 내 신당 세력 간 통합의 첫 물꼬가 터지면서 향후 신당 세력 내 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민당 창준위 대표인 박 전 지사와 민주당 새로운시작위원회 의장인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을 겸한 회동을 갖고 양당 간 통합을 결정했다고 양측은 밝혔다. 양

측은 "이번 통합은 민주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계승한 범DJ(김대중 전 대통령) 핵심세력의 통합이며, 합리적인 중도개혁 대안정당을 세우는 대장정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통합 당명으로 '민주당'을 쓰기로 하고, 지도체제는 공동대표제로 하기로 했다. 공동대표는 박 전 지사와 김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대회는 오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동·남구 합구...전남 선거구 1개 줄어들 듯

여야 지도부 선거구획정 합의

노동 4개법안 이번주 협상 계속

여야 원내지도부는 23~24일 양일간 국회에서 만나 그동안 여야간에 의견이 맞지 않았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수를 253명으로 현재보다 7명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으로 줄이기로 원칙을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원칙에 합의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선거구 변화가 주목된다.

우선 광주의 경우 동구와 남구 일부를 합쳐,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어 기존 8개 선거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구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를 위한 회동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을 지역의 일부가 북구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전남의 경우는 선거구 하나가 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장흥·강진·영암 선거구가 분산돼 인근 선거구로 합구될 가능성

이 큰 상황이다. 3개 군이 무안·신안 또는 고흥·보성 등으로 합쳐져 더욱 복잡한 선거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곡성 선거구에서도 곡성이 분리돼 광양·구례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이번 주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임내현 5·18 구속부상자회서 감사패

'5·18 보상법 개정' 공로

무소속 임내현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23일 오후 3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강홀에서 열린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은 "임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을 개정 등 19대 국회 임기동안 5·18 민주유공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커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보상법 개정안은 국방부의 과거사 진상 규명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5·18 강제구금·연행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7차 보상기간을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오는 2월말까지 기타지원금 신청기간을 연장해 현재 신청자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신당 통합 중요하지만 원칙 지켜야 공감"

정진욱 광주 남구 예비후보

정진욱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4일 "최근 야권 신당의 통합 흐름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추진하는 게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통합 과정에서 새정치와 대안 정당의 가치는 사라지고 오로지 교섭단체 구성 문제에 한 힘을 쏟는 것처럼 비쳐져 우려스럽



다"면서 "현실 정치의 한계는 인정하더라도 '부패척결과 남은 진보청산, 갑질하는 기득권 세력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득권 정치인의 양보와 헌신 없이 신당 통합이 추진된다면 그 바람은 미풍에 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갑석 '무등산 역사길이 내게로 왔다' 재출간

광주 서구갑 출마 예정

사단법인 광주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씨가 최근 '무등산 역사길이 내게로 왔다'를 재출간했다.

4·13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송씨는 최근 150여 회에 이르는 무등산 역사길 트레킹의 결실을 이 책에 담았다. 송씨가 펴낸 책은 지난 2011년 첫 출간 이후 자료 조사와 탐사



를 통해 역사길의 의미를 담았다. 이번 개정판은 임진왜란의 침입에 맞서 분연히 일어선 선조들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편 저자는 전남대 총학생회장고 전대협 의장을 지냈으며 5년 간 수감생활을 했다. 현재 광주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NGO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진태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출마"

홍진태 전 광주시 투자고용국장이 24일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홍 전 국장은 이번 주 중에 선거사무소를 꾸린 뒤 출마기자회견 및 예비후보를 등록할 예정이다.

홍 전 국장은 "도시 성장과정엔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 동구도 마찬가지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비롯한 노령인구 급증 등은 동구가 떠안고 있는 어두운 면"이라며 "하지만 동구는 '호남정치 1번지', '예향광주'라는 무한성장 가능한 캐



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풍부한 행정 경험을 활용, 동구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구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ilee@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 행복찬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